

창작배경 재조명을 통한 『신개지』 재고

김현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신개지』의 창작배경 재조명
- III. 창작 배경을 토대로 한 『신개지』의 내재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신개지』는 1900년대 초반(1905~1915년)의 천안을 배경으로 하여 몰락 일로에 놓여 있는 전통적 양반세력인 유경준과 식민 자본주의에 편승해 새롭게 성장한 하감역 두 계층 사이의 대립 갈등을 통해 농촌 사회에서 진행되는 식민지적 근대화의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농촌소설의 계보를 잇는 『신개지』는 이기영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때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총체성을 구현하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신개지』의 창작배경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1920년대가 아니라 1905~1915년이라는 점, 둘째, 일제의 군국주의 화가 강화되고 탄압이 심해진 1930년대 후반(1938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신개지』의 창작배경이 1905~1915년이라는 근거로 철도개통과 금광채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천안에 경부선이 개통된 시기가 1905년이고 『신개지』 작품 도입부가 철도개통과 함께 전개되는데 기인한다. 금광채굴과 관련해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천안 일대 금광(砂金鑛)이 번성한 시기가 1906년 전후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기존의 『신개지』에 대한 연구가 1920년대 후반으로 상정

* 공주대학교 강의전담교수

하고 진행되었지만, 그 이전인 1905~1915년으로 바로잡았을 때, 식민지화 되어가는 초기의 조선 현실을 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신개지』의 문학사적 위상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즉 당시만 해도 일제의 지방통치를 위한 정비가 한창 구축되는 과정이었고, 농민들을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시킨 토지조사사업이 아직 완결되기 전으로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농민운동과 같은 집단적 움직임이 자리잡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향』과 비교하여 실패작이라고 치부된 『신개지』의 비판적 견해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 즉 1910년 전후의 조선 현실을 이해한 상태에서 작품 분석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이기영, 근대, 식민지, 자본주의, 기법적 실험, 금광, 식민기간, 철도 개통, 지방 유지

I. 머리말

민촌 이기영은 1930년대 프로문학 계열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농민작가¹⁾이다. ‘농촌 사람’ 혹은 ‘평민’이라는 뜻인 민촌(民村)으로 자신의 호를 삼을 만큼 그의 농촌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다. 이는 그의 작품 대부분이 그가 직접 몸담고 있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그곳에 사는 농민들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이자 식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00년대 이후의 조선의 8할은 농민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때 어느 계층보다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했던 집단이 농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기영 역시 농촌에서 나고 자

1) 김윤식과 정호웅은 이기영에 대해 “참된 농민 작가”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농민 문학이 곧 민족문학이었던 사실”에 주목할 때 장편소설 『고향』을 “예술성 차원으로까지 고양된 형상성을 풍부하게 확보”한 기존의 경향소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한 소설로 평가한다.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4, p.144.)

라면서 식민치하 조선 농촌의 궁핍한 실상을 직접 체득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러한 농촌 사회에 내재된 모순의 본질을 명확히 짚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작품으로 현현되는데, 농민 소설의 계보를 잇는 작품군, 즉 『고향』(1933)을 시작으로, 『신개지』(1938), 『땅』(1948~58) 등의 장편소설을 통해 농촌의 내·외적 변화를 소설화하여 그 변화의 동력이 지닌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모순에 반응하는 농민들의 삶과 세계관을 소설화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기영의 작품 가운데 『신개지』에 대한 평가는 유독 냉소적이다. 『고향』이 프로문학의 전형으로서 ‘농민 소설의 최고봉인 동시에 식민지시대 민족문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²⁾로 당시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에서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로 꼽히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반면, 불과 5년 남짓의 시간 차를 두고 쓰인 『신개지』에 대한 평가는 이기영의 작가적 세계관을 의심받을 정도로 혹독하다.³⁾ 두 작품 모두 농촌 소설의 연장선에서 창작되었음에도 이처럼 간극이 확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총체성 여부에 관한 접근으로, 『고향』이 당시 농촌사회의 모순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형상화하고 있는 수작으로 꼽히는 반면, 『신개지』는 농촌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서도 통속화로 치달고 있다는 점에서이다.⁴⁾ 또 작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2) 하정일, 『『고향』과 농민소설의 방향』, 『연세어문학』 22집, 1990, p.130.

3) 권일경은 『신개지』가 조선 농촌 사회의 근대화가 지닌 파행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어서 『고향』과는 달리 역사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때 역사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란 ‘당대적인 문제에 대한 침예한 의식에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신개지』의 주제 의식과 현실 인식이 당대성을 비껴난다는 점을 들어 작가 의식의 퇴조를 반영한다고 평가한다.(권일경, 『이기영 장편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p.59.)

지적으로, 당시 농촌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대립갈등이 꺾진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과의 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갈등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고향』이라면, 『신개지』는 대립갈등이 느슨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우연성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이다.⁵⁾ 등장인물 운수에 대해서도 ‘지식인과 농민의 속성이 변증법적으로 종합된 인물’⁶⁾인 문제적 인물의 창조에 미치지 못하고 ‘마을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그치고 만’⁷⁾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말해 『고향』과 달리 『신개지』에는 농민들이 화합하여 그들의 응축된 힘을 보여주지 못한 다는 점 또한 지적받고 있다. 그밖에 개별적 사건에 얽매이고 있다는 점, 지나친 통속성이 긴장을 떨어뜨리는데, 특히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 보이는 과도한 통속화는 전반적으로 소설의 구성 자체를 허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⁸⁾ 이러한 평가는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필자가 이러한 논의들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신개지』라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다각도의 의미망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

4) 서은주는 『신개지』가 배경이나 전체적인 구조가 『고향』과 비슷하면서도 “흥미 위주의 통속성 그 자체가 작품의 전체 성격을 규정”하며, “당대의 총체상을 중심 갈등을 통해 집약적으로 그리지 못”함으로써, 현실의 이리저리한 에피소드를 산만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한다.(서은주, 『이기영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p.69.)

5) 이상경(『이기영 - 시대와 문학』, 풀빛, 1994, p.266)은 『신개지』가 비판받는 이유로, 주요 등장 인물들의 성격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관성의 결여, 사건 구성의 통속화, 개성화의 결여 등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이는 바로 이 소설에서 ‘시각의 동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6)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문학과비평사, 1987, p.54.

7) 이상경, 『식민지 친일지주의 소설적 형상화』, 『신개지』, 풀빛, 1989, p.459.

8) 김경원은 『신개지』 작품 후반부에 일관되고 있는 통속성이 작품의 긴장을 떨어뜨리고 인물의 전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숙근의 자살시도, 경호의 입정문제, 그리고 월숙, 순남, 운수의 삼각 관계를 들고 있다.(김경원, 『<신개지>의 동참 체험과 리얼리즘의 성취』, 『한국현대문학연구』, 1992, pp.125-126.)

지 못한 채, 프로 작가로서 이기영이 갖는 위상과 수작으로 꼽히는 『고향』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더욱 부각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⁹⁾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들 대부분이 『신개지』의 창작배경을 1920년대로 산정하고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이러한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 논의가 갖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신개지』가 실패작이라 치부된 앞의 근거들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개지』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며, 이 모든 작업이 『신개지』의 창작 배경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창작 배경의 오류를 재조명하면서 기존의 평가와 변별되는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실패작으로 치부되었던 『신개지』에는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숨겨진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히며, 그 문학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신개지』의 창작배경 재조명

필자가 『신개지』를 재해석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창작 배경

9) 『고향』의 창작 배경이 1920년대 초라는 사실은 주인공 ‘김희준’의 청년회 활동과 가족 상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3.1운동의 실패 이후 청년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천안에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구락부가 조직 되었다. 이때 이기영이 청년회 활동에 동참하여 경험한 바가 『고향』의 김희준을 통해 그 실재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1921년 전후는 민촌이 논산에서 돌아와 ‘고향’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아내 조씨와 남매)과 함께 살 때로, 동경에서 공부하다가 초라한 꼴로 귀향한 ‘김희준’의 모습, 아내와 어린 딸 등에 대한 서술이 민촌 자신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확인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 『신개지』의 창작 배경을 1920년대로 규정하고 있지만,¹⁰⁾ 필자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신개지』의 소설 배경은 1905년에서 1915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1905년이라는 확실한 연도가 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천안에 경부선이 개통된 해가 1905년이라는 점에 기인하며, 『신개지』의 발단 부분 또한 경부선 개통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문명은 철도로 수입된다.

몇해 전만 해도 시골읍내의 낡은 전통 밑에서 한가히 백일몽을 꾸꾸고 있던 이 지방도 ○○철도가 개통되고 근자에는 읍제(邑制)가 실시된 뒤로 부터 별안간 활기가 띄워져서 근대적 도시의 면목을 인신하기에 주야로 분망하였다.¹¹⁾

기차가 개통되고 복잡하게 변해가는 천안의 모습을 묘사한 소설 도입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의 상징물인 철도의 개통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소재로 자리한다. 근대 사회에서 철도가 갖는 의미는 대단한 것이었다. 철도는 단지 교통과 운송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모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기차로 인한 근대의 개막은 전통적인 공간과 시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회는 해체되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역과 소통이 이루어

10) ‘하감역이 달내장에 들어온 시점은(『신개지』의 시대적 배경을 1920년대 중반 경으로 볼 때) 약 1880년대 중반’이라고 추정하는 김경원(『<신개지>의 동참 체험과 리얼리즘의 성취』, 『한국현대문학연구』, 1992, p.119.)을 비롯해, ‘이 작품은 1920년대 중반 충청남도 천안부근의 달내골이 배경으로 설정된다’(이미림, 『李箕永의 <新開地> 研究』,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p.3.) 등 대부분 모든 연구자들이 192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확신하고 있다.

11) 이기영, 『新開地』, 풀빛, 1989, p.49.

지게 된다는 점에서 실로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철도가 천안에 개통된 시기가 1905년 1월 1일이다.¹²⁾ 윤수가 서울에서 4년간 감옥생활을 한 후 내려간 고향 천안을 묘사한 위의 글을 처럼, 그곳에는 예전에 없었던 철도가 생겼고 그로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당시 천안의 모습을 작가는 윤수의 눈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료가 뒷받침 되어 있기 때문에 『신개지』가 시기상으로 1905년을 배경으로 창작 되었다는 사실이 실효성을 획득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기영이 『신개지』(『동아일보』, 1938.1.19.~9.8)가 연재되기 바로 전날 쓴 작자의 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근대문명은 철도로 수입된다.

철도연변의 鄕邑이 지방적 소도시로 갑자기 발전하는 소위 新開地를 배경으로하여 거기에서 전개 되는 신구생활의 대조를 재미있게 그려보자는 것이 작자의 주안이다.

거기에는 원시적 무지와 근대적 모양이 착잡히 교류하는 동시에 전원적 도시의 향토색과 량자의 조화된 자연미를 다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사실 이 소설의 배경은 작자가 어려서 보던 배경을 멀리 회고하여 쓴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¹³⁾

12) 1899년에 경인선 철도를 개통한 뒤, 1901년에 경부선 철도 기공식을 갖고 1904년 12월 27일 완공하여 1905년 1월 1일 개통하였다. 천안역과 성환역 역시 1905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원래 경부철도는 천안을 통과하는 노선이 아니었으나, 서울과 부산을 잇는 최단거리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천안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다.(『민촌과 함께 근대 天安을 가다』, 천안박물관, 2012, p.52.)

13) 이기영, 『동아일보』, 1938. 1. 18.

위의 인용글에 제시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면, 이기영이 『신개지』에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바는 바로 철도를 중심으로 근대화 되어가는 과정을 신·구세대의 대조를 통해 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의 배경이 작자가 어려서 보던 광경을 멀리 회고하며 쓴’다고 술회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신개지』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기억을 되살려 1905년 당시의 모습을 소설 속에 고스란히 복원시키고자 한 의도로 해석 가능한데, 이는 달리말해 그만큼 현실성이 짙게 배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작가는 철도 개통이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설정하여 근대화되면서 흥한 하감역과 몰락한 유경준, 그리고 더욱 살기 힘들어져가는 농민의 삶을 그리는데, 그들의 성장과 몰락, 궁핍화는 무엇보다 현실의 변화 속에서 “자기 계급의 내적 필연성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이 작품의 리얼리즘적 성과가 있다.”¹⁴⁾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신개지』의 창작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서 금광 채굴과 달내강 제방공사, 개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금광 채굴은 철도 개통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실질적 배경을 밝히는 중요한 코드로 작용한다. 이기영의 삶을 투시해 보면 그가 살아온 생의 굴곡 마디마디에는 ‘금광’과 연관된 기억이 적지 않게 자리하고 있어, 여러 작품에 비중 있게 투영된다.¹⁵⁾ 그만큼 이기영에게 금광채굴과 관련된 기억은 특별한 것으로, 금광은 그의 고향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을 파산에 이르게 한 원흉이기도 하고, 이기영 자신도 방랑시절에 광산 노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4) 이상경, 앞의 책, p.248.

15) 이기영의 작품 중 『봄』, 『두만강』, 『신개지』 등에서 금점의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

우리 동네에도 한동안은 금점판이 벌어져서 각처에서 금점꾼이 모여들었다. 적막하던 농촌은 별안간 난장판이 되고 집앞의 내밭판은 닭의 발목으로 헤집어놓듯 하였다. 순박한 농촌에는 부허(浮虛)하고 음탕한 기분이 떠들어 왔다.

<...>

신축년(1901년 민촌 7세때)이면 내가 겨우 5, 6세밖에 안 되던 때이다. 거금 근 40년 전에 금광을 시작했다면 북도의 운산금광보다는 뒤졌다 할지라도 남도로서는 직산, 양대 금광과 아울러 효시가 아니었던가 한다. 여하간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금광을 지금(1937년)까지 계속한다면 산금지로는 성적이 좋은 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대는 석금광인데 여기는 사금이였다. 하업리의 냇길에서부터 시굴하던 것을 나중에는 이 동안 상중하업리와 무네미, 신촌의 두 계류 연변의 전담까지, 금이 잘 나는데는 모조리 폼다. 텃밭은 물론 집을 헐기까지 하고 금구덩이를 파 들어갔다. 그렇게 읍내까지 파먹었다. 이 동리에서 사금광의 발견은 아마 역사 이후로 전무후무한 황금시대라 할 것이었다.¹⁶⁾

위의 인용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년시절 이기영의 기억에 의하면 금광 채굴은 마을을 ‘난장판’을 만들 정도로 어수선해지고 그 규모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1900년대 초반으로 추정 가능하다. ‘평안도 운산금광 다음으로 채금량이 많았다는 직산 금광은 경부선이 생기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¹⁷⁾라는 자료의 기록을 참고하자면, 우리나라의 금광 채굴이 1930년대에 전국적으로 열풍이 일었지만 직산 금광은 훨씬 이전인 1890년부터 알려졌다고 한다. 더욱이 철도가 개통되면서 금광 채굴을 위해 몰릴 듯이 밀려든 외부인들로 말미암아 본토박이 천안 사람들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년시절 이기영이

16) 이성렬, 『민촌 이기영 평전』, 심지, 2006, pp.118~119.

17) 『민촌과 함께 근대 天安을 가다』, 천안박물관, 2012, p.175.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적막하던 농촌은 별안간 난장판”이 되고 “순박한 농촌에는 부허하고 음탕한 기분이 떠들어왔”던 현실이었다. 심지어는 “1901년에 하염리에서 처음 발견된 사금광(砂金鑛)이 1906년쯤에는 크게 번창하여 그 해 여름에 난장판이 서고 드디어는 살인극까지 벌어 지기에 이른 것”¹⁸⁾으로 보아 이기영에게 금광은 상당히 비중있는 소재로 이후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신개지』에서도 금광은 작품을 이끌어 가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몰락 일로에 놓여 있는 유경준이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마지막으로 시세에 편승하여 벌이게 되는 사업이 바로 금점판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광 사업이라는 것이 자본 운용 방법상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의미에서 투기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유경준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하감역이 황금 제일주의자로서 치부를 위해 필요한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공연히 허비하는 데는 일전 한 푼을 떠는,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투자 할 줄 아는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¹⁹⁾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구조를 읽어내지 못하는 유경준의 경우, 방탕한 생활 끝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금점판 사업은 결국 그를 ‘과멸’로 이끌어 간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결국 ‘금광’은 당대 현실의 부정적인 일면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유경준이 몰락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그의 방탕한 소위라기보다도 그가 시대를 거스른 소극적 처세술에서 오직 낭비생활을 일삼은 것”²⁰⁾이라는 작가 개입의 서술을 보면, 유경준이 일제에 편승하지 않는 것으로 양반으

18) 이성렬은 금점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1906년 늦여름 -즉, 민촌이 서당을 그만두고 친안 읍내에서 학교에 다닐 시절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민촌문학의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서술하고 있다.(이성렬, 앞의 책, pp.120-121.)

19) 심지어는 사돈인 유경준에게 금광을 하지 말고 있는 돈이나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돈 버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충고까지 하기에 이른다.

20) 이기영, 『신개지』, p.61.

로서의 주체성을 고수한 점은 일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소극적 처세술’이라는 선택에 이어져야 할 행위, 즉 적극적 거부를 통한 미래로의 새로운 극복의 방도는 찾지 못한 채 자기 분열되고 만 유경준에 대한 암묵적 질책의 잣대가 바로 금광 사업에 손을 대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어가는 것은 금광사업에 대한 이기영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셈이다. 결국 금광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구조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순박한 농촌에 부허하고 음탕한 기운’을 떠돌게 만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작품에 투영되면서 1905년 전후 천안의 현실을 담아내는 매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 창작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재로 달내강 제방공사 장면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방공사 같은 지역사업의 경우,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일제의 지방지배체제의 한 형태로서 일제의 ‘꼬나풀’인 지방유지들이(하감역으로 대표되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농민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수단으로 삼아 벌이는 사업이다. 이기영은 『신개지』에 ‘번영회’라는 장을 따로 설정하여 그 현장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제의 교묘한 지배체제를 알 턱이 없는 순박한 농민들을 이용하는 이들의 불순한 행태에 대한 지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대변하는 에피소드라 할만하다.²¹⁾

21) 작품에서 ‘번영회’라는 장에 자세히 드러나는 사건으로, 일제의 앞잡이인 신흥지방유지 하감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제방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농민들은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에만 현혹되어 정작 자신들의 일터를 점점 잃어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더욱이 제방 공사 후 생긴 땅을 개간하여 농토로 만드는 일에서도 하감역이 독자적으로 사들인 개간지를 개간사업을 하는데 부역으로 강제 동원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그들에게 휘둘리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일제가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에서 지방을 통치하기

이상에서처럼 철도 개통과 금광채굴 등의 근거를 토대로 할 때, 『신개지』의 창작 배경이 1920년대가 아닌 1905년 이후라는 사실이 검증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때 『신개지』의 창작 배경이 1905년, 즉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화가 막 진행되기 시작한 초반기라는 전제하에 작품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개지』에 담긴 다각도의 의미망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근대화가 한참 진행되기 시작한 1900년대라는 공간은 3.1 운동 이전 상황으로 본격적인 민족운동이 전개되기 전이다. ‘애국 계몽기’인 이 시기에 지식인들이 제일 우선시 여긴 것이 서구의 근대적 문물과 사상을 수용, 보급하는 일이었다. 이때 이들이 특히 활발하게 전개시킨 부문이 교육운동이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근대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립학교를 설립하지만 합방 이후 관립학교는 식민지 체제 아래서 옳은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간파한 지역명망가들은 민족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 설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떠나가게 된다.²²⁾ 즉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근대 민족 교육 보급이 애국계몽운동기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²³⁾ 하지만 사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정이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문을 학교에서 배우고, 반상을 타파하여야만 우리 조선도 문명한 나라로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실감각에 어두운 민중들을 억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22) 의병항쟁이 거의 진압되고 일제의 강점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지역명망가로서 이들은 다시 ‘순국’이라는 형태로 반일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개별 인사의 ‘순국’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일제에 저항하였지만 이는 지속적·조직적인 항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이를 보다 지속적인 반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익환, 『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운동과 지역 명망가』, 『한국문화』17, 1996, p.293.)

23)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6, p.237.

될 수 있으며 왜놈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 독립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배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드러낸다.²⁴⁾ 이기영의 부친이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천안의 사립영진학교(私立寧進學校)의 경우만 보더라도 “‘서당’ 티를 겨우 벗은 초등교육 기관으로서 그 시설과 재정이 형편없었”²⁵⁾을 뿐만 아니라 한글과 국사 등의 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일어와 한문을 가르친 점을 볼 때, 이는 애국계몽운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결국 이들은 민족의식의 고취보다는 일어 습득을 통한 신문명의 수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근대화’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비록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선진문물에 대해서까지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일합방이 되자 일제는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위해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하지만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특히 농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동리는 상보적 기능을 지닌 공동 조직으로서, 그리고 재지(在地)의 명망가층이²⁶⁾ 주도하는 자

24) 물론 유럽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했던 안동지역의 協同學校(1907) 같은 경우 유력 동족마을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修身, 조선어, 역사, 地誌, 外地, 한문, 작문, 산술, 대수, 물리, 화학, 生理, 동물, 식물, 博物, 창가, 체조 등 17과목을 교습하는 중등 수준의 학교로서 3.1운동 직전까지 운영되었던 비교적 체계 있는 사립학교도 존재한다.(김익한, 「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운동과 지역 명망가」, 『한국문화』17, 1996, p.293.)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명망가의 세력이 약했던 천안의 경우 의욕과는 달리 학교 운영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립학교도 지역마다 수준의 편차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5) 이성렬, 앞의 책, p.135.

26) 명망가층은 경제적으로는 대체로 중소 지주에 해당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한말 이래 재지 양반을 잇는 사회 계층으로서 주로 읍치가 아니라 동리 지역에 거주하고 존위 등으로 불리면서 동리의 자치적 운영을 지도·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고 학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어 지역 사회로부터 상당한 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계층

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은 그리 간단히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가 택한 정책 방향은 면을 말단 행정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전초 기지로 하여 점차적으로 각 지역 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실현해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지방유지집단’²⁷⁾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는 매개로 삼는다.²⁸⁾ 즉 관료와 유지집단을 매개로 군면 단위의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형성한 뒤 이를 통해 조선의 농촌사회를 지배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농촌을 분절화하고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유지집단’으로 대표되는 농촌의 지배세력과 야합하여 농민들

을 의미한다.(김익한, 『1910년대 일제의 지방 지배 정책』, 『사회와 역사』 제50권, 1996.12, p.219.)

27) 지방유지는 일제의 지방정책 과정에서 형성된 총독정치의 매개집단으로 일제가 국가체제모니를 조선의 농촌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한 ‘지위집단’, 즉 재산(특히 토지재산)과 사회활동 능력(학력), 당국 신용과 사회 인망을 고루 갖춘 지방사회의 ‘공인’된 지위집단(조선인, 일본인 포함)을 일컫는 말이다.(지수걸, 『일제 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역사교육』 제34호, p.582)

28) 일제하의 조선 사회는 공식적인 정치사회(정당과 의회)가 부재한 ‘식민지 사회’였다.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유지건, 일반 주민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제 시기에는 국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민족 계급 계층 지역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을만한 마땅한 정치적 매개와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독부는 어떤 형태로든 식민지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총독부 측이 ‘관료-유지 지배 체제’를 매개로 한 ‘정치’(비공식 부문의 정치), 즉 민원과 진정 등을 ‘허용’하거나 ‘장려’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총독부는 민원·진정 활동을 통해서 지방 유지나 주민들을 체제내로 포섭할 수 있었던 반면, 지방 유지나 주민들은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한 비공식적인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나 불만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지수걸, 『일제 시기 在朝鮮 일본인 사회와 조선의 ‘지방 정치’』,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5. pp.111~112.)

에게 과도한 소작료를 물리는 등 그들에게 이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합방된 직후 이루어진 식민지적 근대화는 이들 농민들의 이중의 소외를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농민들의 계층분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한다. 더욱이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 우리 농민 중 다수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경작권을 박탈당하고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함에 따라 소작권 자체가 위협을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때만 해도 3.1운동 직후 본격적으로 일어난 소작쟁의 같은 집단적 행동²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은 3.1운동을 거친 후에 서야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농민들은 3.1운동을 경험한 후에 서야 비로소 경제, 사회의식과 비판의식이 싹트면서 농민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사상이 유입되면서 지식 인층도 농민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결국 본격적인 조직적 농민운동의 전개는 1920년대 이후부터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신개지』의 창작 배경이 되는 1905~1915년은 『고향』에서처럼 민족의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했던 과도기이자, 근대화가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9) 1920년대는 전반기는 농민운동의 대두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농민 운동은 대지주를 앞세운 일제의 농민 지배와 수탈 정책에 소작농민이 직접 투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소작쟁의가 주류를 이룬다. 즉 소작쟁의가 주류를 이룬 것이다. 이 시기 소작쟁의의 발생 건수는 1920년 15건, 1921년 27건, 1922년 24건, 1923년 176건, 1924년 164건, 1925년 204건 등이다. 1920년대 후반기는 1926~1930년간의 시기로 농민운동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농민조직은 산미증식계획의 본격화로 계급적 몰락의 위기에 처한 자작농, 자소작농이 소작인조합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농민조합으로 개편되면서 대중성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Ⅲ. 창작배경을 토대로 분석한 『신개지』의 내재적 의미

『신개지』의 창작 배경이 되는 1905~1915년은 한일합방과 더불어 근대 문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변화의 시기였다. 작가는 식민지적 근대화에 편승해 친일지주로 성장한 신흥세력 하감역과, 시대를 거스르는 소극적 처세술로 몰락해가는 유경준을 양 축으로 하여 철도개통과 동시에 진행되는 달내골 농민들의 삶의 영락과정을 『신개지』에 그려낸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지금껏 『신개지』는 『고향』에 비해 긍정적인 인물의 형상화나 변혁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취약하고, 전망이 부재하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까지 의심받아왔다. 하지만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1910년 전후라는 사실을 밝힌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먼저 주목할 점은 이기영이 『신개지』를 창작한 1938년(1938.1.19.~9.8.)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이다. 국내적 정치 상황으로 볼 때 1934년은 좌익 사상에 대한 억압이 상당했던 시기로, 카프의 제 2차 검거사건이 있었고, 카프의 중심작가였던 이기영 역시 이로 말미암아 수감생활을 하게 된 해이다. 1934년 카프해산으로 인해 프로 작가들은 더 이상 사회의 발전과정에 동참할 수 없게 되면서 세계관이 변질되거나 사회 문제로부터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카프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영도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확정받는데, 공산주의 사상의 전향 질문에 “원래 전향을 할 만한 사상을 못 가졌다.”³⁰⁾ 라는 다소 전술적인 대답으로 얼버무린다.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한편으로 적극적 전향자들에게 비판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30) 『동아일보』, 1936, 2, 13.

뒤엎어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기영은 한계적 현실에서 그의 구체적인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늘 부딪혔던 것이다. 이때 이기영이 선택한 우회적인 방법이 바로 기법상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린 채 식민지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³¹⁾

『신개지』에는 통로가 막혀있는 암흑기에 창작을 이어가기 위한 이기영의 고뇌 - 새로운 기법의 시도, 이데올로기의 배제 - 의 흔적이 모두 담겨져 있다. 즉 『인간수업』의 기법적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농촌 소설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서 식민지 초기의 농촌 현실을 작가의 체험을 살려 세부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1. 근대적 자본의 침투과정과 대응방식

일제의 근대화는 제도적 형태로 나타나 부지불식간에 농민들의 일상을 지배한다. 철도라든가 우편소 혹은 제방공사 등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이는 소위 몇몇 상류계층에 국한된 일이지, 전적으로 농사가 전업인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근대화를 위한 노동에 동원될 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거나 즐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합방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근대화의 모순점을 이들 입장에서 날카롭게 인식할 리 만무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31) 예를 들자면 이기영이 감옥에서 구상하여 출옥 후 발표한 작품이 『인간수업』(1936)인데 이기영은 이 작품에서 실험적 기법을 도모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과도한 풍자로 인해 실패작이 되고 만다. 하지만 실패작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기법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려했던 그의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 실험적 기법은 당시 사회주의 사상이 봉인된 마당에 그가 생산해 낸 지구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기영이 『신개지』에 장차한 새로운 기법에 관한 문제는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생략하고, 향후 보완할 예정이다.

‘신지식층’이라 하는 일본유학생들조차 “대부분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문명의 우수성을 지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³²⁾라고 할 정도이니,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근대화를 농촌의 현실 안에 간혀 제대로 간파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신개지』는 이처럼 근대화 이행기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신개지』에 등장하는 천안 지역 농민들에게 있어 ‘근대’란 우선적으로 ‘돈’을 통해 인식된다. 그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양반인 유구성 집안이 돈에 의해 몰락해 가는 모습과, 근대화로 인해 발생된 부수적인 이익으로 성공한 하감역이 돈으로 양반 지위를 사서 마을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돈이면 반상(班常)의 질서, 즉 신분계층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돈으로 양반의 위치에 올라 온 하감역³³⁾은 아무리 많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돈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치유할 수도 있다고 확신하는, 즉 돈을 수단보다는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감역이 그 지역의 전통적인 양반세력이었던 유구성 집안의 자리를 돈으로 차지하는 것을 목도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바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기제로 작용한다. 하감역 집안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계약, -하감역과 같은 ‘지방유지’들과의 이해관계를 매개로 근대 자본으로서의 돈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서는

32) 김도형, 『일제침략기 반민족 지배집단의 형성과 민족개량주의』, 『역사비평』, 1989 가을, p.42.

33) 정연태는 하감역과 같이 주로 재력 소유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유지를 ‘資本家型 有志’라 하고, 학력 소유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유지를 ‘知識人型 有志’라고 분류한다.(정연태, 『조선말 일제하 資産家型 地方有志의 成長 추구와 利害關係의 中層性』, 『한국문화』31, 2003. 6, pp.292-293.)

식민화의 기초를 다지는 방편으로 삼는³⁴⁾ -이 있었지만 이를 간과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돈’의 위력에만 현혹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까지 돈으로 성공한 하감역은 돈을 들어서 세상에 안되는 일이 없었다. 우선 그것은 하감역 자신을 돌아다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자기 역시 근본을 따져보면 순점이의 지체보다 무엇이 낫다 할까. 그가 지금 뱃속에 양반이 잔뜩 들어앉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이 그렇다. 그래 그는 돈으로 기구를 갖추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하루밤 사이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이 즉 양반이다. 과연 자기가 개화세상 덕으로 돈을 모아서 새 양반이 되었다면 순점이의 사생자가 자기 집안에 입적함으로써 역시 개화 덕에 못을 입을 건 무엇인가 고나무 가지를 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감이 열린다. 이 역시, 그와 같다. 하감역의 이런 생각은 그의 금전만능주의와 완전히 합치되어서 경후를 자기집 사람으로 만들자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버젓하게 예식을 차리는 것을 떳떳하다 하였다.

<…>

실로 경후의 모자야 말로 시궁창에서 자라난 연꽃과 같다 할까? 더러운 진흙물과 같은 세상 밑에서 천대를 받고 살던 그들은 하감역의 힘으로 하룻밤 동안에 청초한 꽃을 피우게 한 것 같다.³⁵⁾

34) 지수걸에 의하면 일제시기 지방유지들은 각종 공직활동을 통해 형성한 연줄망과 당국신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활동, 각종 인허가나 금융·세제상의 특혜를 획득하는 활동, 학교나 관청유치, 지역 개발(특히 도로, 제방, 다리, 전기·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등 이른바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90, 2010. 2, pp.166-167.) 이러한 일들은 『신개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방공사를 준공한 후 새로 생긴 신작로와 달내강을 중심으로 지방 명소를 만들려는 유지들의 생각은 얼핏 보기엔 지역 발전을 위한 일처럼 그려지지만 실상 하감역을 비롯한 지방 유지들의 살만 찌우는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윤이 모든 마을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지는커녕 마을사람들은 부역에 동원될 뿐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35) 이기영, 『신개지』, p.407.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하감역은 아들 하상오의 사생아인 경후를 입적하는 문제에 관해, 처음에는 구설수를 염려해 경후를 호적에 올리기 꺼려하지만, 이마저도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차 굳어진다.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일을 오히려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행하는 하감역의 행위에서 당시 ‘돈’에 대한 그들의 맹신이 얼마큼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을 지켜본 마을사람들의 태도다.

동리 사람들은 그전에는 순점이를 손가락질하며 화냥년이니 잡년이니 하며 모두들 욕을 했다. 그는 듣는 욕도 먹고 귀먹은 욕은 더 말할 것 없이 먹으면서도 꼴떡은 병어리같이 있었는데 한번 경후가 입적이 된 뒤로는 그들의 태도가 일변했다. 그들은 도리어 순점이를 부러워하고, 흥보며 욕할 때와는 반대로 가까이 굴러고 알랑거리는 축들까지 있었다.³⁶⁾

하감역의 이중적인 행동을 보면서 비판은커녕 부화뇌동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전통적 윤리의식이나 도덕은 찾아 볼 수 없고, 근대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속물주의적 성향만이 팽배해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길가에서 놀던 조…조고만 아이 두어 놈이…아 그놈들이 맞붙어서 싸움을 하는데, 하하……한 놈이 뭐라는고 하니 말야……요……요런 맹랑한 놈의 말 좀 봤나. 저놈보고 ‘내가 너보다 어른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쪽 놈이 ‘어……어째서 네가 어른이냐’고 조……중주먹을 댈 거 아냐, 그……그러니까 이놈 보지 ‘나……나는 저보다 돈이 많잖으나? 넌 일 전밖에 없지, 난 이렇게 오 전이 있어 이놈아!’아 -이런단 말이야. 하하하……세상 인심이 이런 걸.

36) 이기영, 위의 책, p.412.

그런데 뭘! 누님 그렇지 않아요? 하하하”³⁷⁾

근대 사회의 계층 형성이 과거 계급의 차이나 인성의 유무와는 달리 단 한 가지, 돈에 의해 모든 질서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위의 인용문처럼 아이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즉 아이들의 행위에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은 과거의 향촌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는 상관없이 오직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당시의 농촌 사회에서도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화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생각은 하감역이 점점 더 큰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만 할 뿐, 달리 비판의식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태도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철도 개통과 맞물려 읍내가 대쳐로 발전하는 반면, 달내장터 삼거리³⁸⁾의 몰락하는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방식을 보면, 처음 달내장이 폐지된다고 할 때만해도 “삼거리 사람들이 선두로 나서서 시장폐지 반대운동의 깃발을 들고 군으로 진정을 해”³⁹⁾서라도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는 “널리 대국을 살피야 한다”는 대세론에 휘말려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즉 처음에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자체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며, 그들보다 힘을 가진 하감역이 달내장터 삼거리가 몰락하는 모습을 방관만하는 태도에 반감을 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달내장 제

37) 이기영, 앞의 책, p.19.

38) 철도와 관련해서 달내강 삼거리와 읍내의 관계는 천안 삼거리와 천안 읍내를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개지』에 삽입된 노래 곡조인 “달내강 삼거리 늘어진 버들은 흥 / 기차 바람에 나지발 났다네 / 예루화 좋다 흥 성화가 났구나 흥¹⁾”이 원래 천안 삼거리의 변천과 관련하여 불렀던 「흥타령」(“천안 삼거리 흥 능수버들은 흥 / 기차 바람에 낙지발 났다네 흥!”)에서 ‘달내강 삼거리’로 지명만 바뀌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데서 당대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39) 이기영, 위의 책, p.14.

방공사 후 생긴 진펄을 농장으로 개척하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저항은커녕 “기존에 사전을 파먹던 사람들조차 재력을 가진 한 두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속히 농장을 풀기를 바”⁴⁰⁾라기까지 하는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자본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농민들의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읍내가 발전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이들의 막연한 생각은 “세상일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만 같았다. 그것이 한편으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⁴¹⁾라는 김선여의 독백에서 드러나는 바, 바로 식민지적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농민생활이 꺾어져가는 1910년 전후 조선 현실의 본질을 내포하는 것이 된다. 즉 김선여를 통한 이러한 물음은 작가가 식민지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민중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화가 되어가면서 세상이 더욱 살기 좋아진다는 그 자체로만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때, 이기영 스스로도 자본주의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살기 좋아지는 계층은 하감역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부르주아, 일제의 하수인인 친일주의자들 뿐이다. 반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빈농이나 농업노동자로 몰락했던 것이다. 이는 “왜놈들이 독판을 치면서부터는 조선 사람들은 읍, 촌을 막론하고 해마다 생활의 파탄과 몰락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 오직 처지가 좀 나아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친일 세력에 붙어서 이권이나 말직의 한 자리를 붙잡은 극소수의 친일 분자뿐”⁴²⁾이라는 3·1운동 이전 조선의 현실에 대한 그의 회고를 통해, 작품 속의 현실과 당대 현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게다가 『신개지』

40) 이기영, 위의 책, p.253.

41) 이기영, 위의 책, p.18.

42) 이기영, 『내가 겪은 3·1운동』, 『조선문학』, 1958. 3.

의 배경이 되는 1910년 전후는 아직 산업노동자로 전화하지도 못한 상태기에 그들의 생활 상태가 극도의 빈궁으로 떨어져가는 과정을 포착함으로써 근대화의 이면, 농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당대 현실적 무게감을 고스란히 전하려는 작가의 비판적 의도가 『신개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생적 성장

『신개지』의 두 축을 구성하는 하감역과 유경준 집안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비교적 평등하다. 앞서 유경준의 몰락이 새로운 시대에 맞서 극복의 방도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일삼다가 자기분열 되고 만 데에서 찾고 있듯이, 하감역 또한 후반부로 가면서 서서히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곧 인간관계의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을 배경으로 근대의 지배세력이 된 하감역과 그 가족들(하감역의 아내, 아들 하상오, 하상칠)에게서 나타나는 우월의식에 대해 작가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출신이 미천한 장사꾼이었음을 소설에서 거듭 상기시킨다. 이는 지역 농민들에게 생활의 수단인 ‘돈’의 위력만을 인식시킬 뿐, 그 가족들에 대한 지배세력으로서의 존경심까지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즉 수탈적인 ‘식민지 지주제’와 억압적이며 종속적인 ‘관료-유지 지배체제’ 사이에서 성장한 일제하의 지방유지들은 조선왕조 시기의 사족들과는 달리 도덕적 권위까지는 가질 수 없었다.⁴³⁾ 이들이 비록 근대화의 결정적인 요소인 자본을 매개로 부를 축적하는데는 성공했을지라도, 근대화와 더불어 자생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평등의식을 읽어내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신개지』에는 일종의 평등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데, 돈의 위력은 실감하지만 ‘돈’을 배제한다면, 모

43) 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90, 2010. 2, p.169.

든 인간관계가 평등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농민들에게서 찾고 있다. 즉 누구나 봉건사회에 내재된 혈통에 따른 계급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농민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단초는 과거 지배세력이었던 양반 유경준을 통해 제시되는데, 그가 한량 짓을 일삼고 금점판 등의 사업에 뛰어들어 거듭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몰락했음지라도, 근대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가 '평민사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은 개인 철학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평등사상을 작기는 윤수를 통해 실현시키는데, 윤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마을 유지들로부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고에서 이러한 비판의식이 싹트게 된다. 윤수는 이미 죄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감역을 비롯한 주변의 지방 유지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태도에서 '애꿎고 분한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이는 윤수 나름의 객관적인 판단에 준거하여 부당함을 감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기는 어쩌다가 전과자가 되었던가? 그러나 오늘날 윤수는 전과자를 그리 비판할 것은 없었다. 문제는 전과자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우선 읍제가 되기 전의 그전 읍내 면서기는 공금횡령죄로 서기도 떨어지고 징역들 살았건만, 있으니까 다시 신용을 얻어서 남만 못지 않게 활동을 계속하지 않는가.⁴⁴⁾

객관적으로 보자면 윤수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지방 유지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돈이 있으니까 또 남들 위에 군림하려들기 때문이다. 윤수의 이 같은 사고는 하감역을 비롯해 그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농민들 앞

44) 이기영, 앞의 책, p.114.

에서는 도덕군자 행세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를 위하는 체하는 등 가식적인 행을 일삼는 그들에 대한 은연중의 비판인 셈이다. 이처럼 윤수가 특별하게 의식있는 인물로 부각되는 것은 기존 농민들과 달리 윤수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해서는 지배자로 대표되는 하감역 부자(父子)와도 떳떳하게 맞대응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월숙 또한 윤수와 비슷한 캐릭터로, 남녀가 유별함에도 윤수와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개방된 사고를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윤수와 더불어 아버지인 하상오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사생아로 마을에서 경시받던 경후를 하상오의 호적에 올리게 함으로써,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리고 행동하는 인물인 것이다. 즉 윤수와 월숙으로 대변되는 신세대들의 사고에는 과거의 혈통적 계급의식도, 근대 자본에 의해 형성된 계급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영은 『신개지』에서 현실의 모순에 대응할만한 발전 가능성을 담지한 상징적 인물로 윤수를 형상화한다. 마을 사람들과는 차별적으로 윤수에게서 보이는 이러한 발전 가능성은 윤수가 신학문을 배운 몇 안 되는 인물이면서⁴⁵⁾ ‘박람’하다는 점, 그리고 비록 수감생활을 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윤수의 성격이

45) 실제로 이기영은 부친 덕분에 1905년 말경 영진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특전으로 이기영은 『해매이던 발자취』에서 이에 대해 <그러는 동안에 나는 소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 상중하 동 백여 호에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라고는 나 외에 불과 12인이었다. 나는 결코 행운을 타고나지 않았다마는 그들에게 비하면 행운일지 모르겠다. 나는 열두 살 먹던 해 겨울에 비로소 우리 고을에는 사립학교가 창립된 것이었다. <…> 이런 희한한 특전을 받은 영준은 일군에 20-30명이었다. 그 외에 많은 학령에 달한 아동들은 서당에도 통학치 못하는 가련한 농촌의 소년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보통 마을 사람들처럼 가진 자에게 아부하는 편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타인을 위해 선의를 베풀 줄 이는 아랑까지 겸비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수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과거의 지역명망가가 담당했을 역할을 윤수로부터 찾게 된다.

그들은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윤수와 차차 친근히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럴수록 윤수는 어느덧 달내골 상중하 삼동리의 중견청년이 되어갔다. 그들은 구장이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윤수에게 간혹 묻는다. 사실 달내골에서도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흔치 않거니와 윤수만큼 박람을 한 사람 역시 별로 없었다.⁴⁶⁾

그는 야학으로 진흥회로, 동리 일이라면 좋은 일이거나 굶은 일이거나 밭 벗고 나서서 자기 일 보듯 피를 부리지 않고 진심으로 열성을 다하고 보니 동리 사람들은 자연 그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은연중 하감역 집을 상대할 사람은 윤수밖에 없을 것처럼 그의 인금이 나날이 커졌다.⁴⁷⁾

윤수는 당시 지식인층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동경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아니고, 다만 보통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평범한 인물이다. 하지만 윤수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수 있는 능력과 불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춘 인물이다. 더군다나 『고향』에서는 싸워야 할 대상(지주-소작농)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반면, 『신개지』의 현실 상황은 식민지적 본질을 인식하기 전단계로 저항해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수면위에 들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무엇보다 현실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46) 이기영, 앞의 책, p.320.

47) 이기영, 위의 책, p.415.

것이다. 이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는 마을 사람들처럼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돈을 벌려고는 들지 않았다. 물론 그들도 돈을 모을 생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 — 그래서 여유 없는 생활에서 돈에 갈급증이 난 때문이라 하겠지만 그들보다 다소 무엇을 안다는 자기까지 그들처럼 이욕에만 눈이 벌겍다면 도대체 안다는 보람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는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다. 그들이 지식을 악용하고 불의를 일삼는 까닭에 무지한 사람은 그들을 닮아가지 않는가. <…> 그는 도리어 실천을 떠난 지식은 비웃고 싶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비록 가난한 생활을 하며 날마다 품을 파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도 남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고 마음에 거리낄것이 없는 자족한 생활이었다.⁴⁸⁾

이처럼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황금만능주의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하는 윤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 농촌운동의 주도자로서의 자질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신개지』는 비록 『고향』에서 김희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일으킴으로써 지주와의 갈등에서 승리하는 ‘동참의 체험 모색이 가로막힌 상황’⁴⁹⁾이지만,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비전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바로 윤수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연대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은 『신개지』를 그 전 작품인 『고향』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고향』에서는 김희준을 필두로 농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낸 소설로 형상화된 반면, 『신개지』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이 이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희준과 같은 인물인 윤수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48) 이기영, 위의 책, pp.414-415.

49) 김경원, 앞의 책, p.127.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이러한 시각도 일부분 수용할 수 있지만, 『신개지』가 발표된 시기가 193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기영은 『신개지』에서 지주-소작인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고향』의 김희준과 같이 마을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는 선지적 역량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배되는 근대화의 모순을 천안이라는 공간에서 그들과 더불어 겪으면서도, 그들과 달리 주체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즉 문제적 인물이 홀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문제적일 수밖에 없게 된 원인과 성장과정을 그 지역 농촌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상화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억울할 수 있는 옥살이를 하고 그 때문에 사랑하던 남순이 마저 기생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두려움과 질시의 대상이었으나 차차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작가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이후 예상 가능한 그들과의 연대에 대한 암시적 효과를 주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윤수가 금전판에서 경후를 지키기 위해 다른 노동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 유경준이 금광사업실패로 인해 급전 상황에 처했을 때 하감역의 둘째 며느리인 그의 딸에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했고 그 일이 발각되어 하감역에게 꾸중을 들었음에도 당당한 태도로 맞선 일, 심한 시집살이로 자살을 결심하고 저수지에 빠졌던 숙근을 살려낸 일, 경후의 아버지를 찾아주게 된 일 등, 우연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같은 그의 행동은 마을 주민에게 긍정적 인물로 인식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임을 나타내는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해 마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절대적 권력자인 하감역보다 윤수를 필두로 하여 그 일을 해결 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믿음은 실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일하기에 더욱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고향』의 김희준이 마을 사람들보다 월등한 인간으로서 두드러진 면모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 지역에 뿌리내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과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운수를 과도기적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현실성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1930년대 중·후반은 일제의 사상탄압으로 인해 자유로운 문학 활동이 제한된 시기였다. 특히 프로 문학가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이 존재⁵⁰⁾하는 가치전도의 시대였으며, “조선문학의 추향(趨向)은 불안이라든가 혼돈이라든가 무방향성이라든가의 표현으로 형용할 수 있었고 통일된 방향은 소실⁵¹⁾된 상태였다. 이를 타개할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의 한 방법이 채만식의 문학으로 대표되는 풍자소설이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해도 괜찮은 것으로 돌려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 검열 시대⁵²⁾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기영도 위장 전향 이후 그에 대한 자구책

50) “있을 것은 다 있고 없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회를 온전한 뜻에서 좋은 사회이다.” 하지만 “있을 것은 하나도 없고 없을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회는 온전한 뜻에서 나쁜 사회”라고 윤구병은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1930년대 우리의 현실은 없을 것이 가득 찬 사회였던 것이다.(윤구병, 『있음과 없음』, 보리, 2003, p.195.)

51) 임화, 『방황하는 문학정신』, 임화문학예술전집편찬위원회, 『문학의 논리』, 소망출판, 2009, p.195.

으로 1936년 실험적 소설인 『인간수업』 썼으며, 1938년에는 시계를 과거로 돌려 철도로부터 파생되는 농촌 속으로의 자본주의의 침투와 그로 인한 변화 과정을 천안을 배경으로 『신개지』에 담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개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해진다. 『고향』, 『신개지』, 『땅』으로 계보를 잇는 농촌 소설 군 가운데 『신개지』가 갖는 문학적 위상이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유독 『신개지』에 대해서는 전망의 부재, 작가의식의 퇴조 등의 조건을 들어 문제작으로 치부되는데, 이에 대한 오해는 『신개지』를 소설 속 창작 배경으로 재구성 해 볼 때 해결된다. 즉 『신개지』의 창작 배경이 1920년대라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1905년부터 1915년 사이가 『신개지』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 철도개통과 금광채굴을 들 수 있는데, 천안에 경부선이 개통된 해가 1905년이고, 작품의 시작이 바로 철도개통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전개되기 때문이다. 또 금광채굴에 관해서도, 천안 지역의 금광채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1900년대 초반에는 본격화되었다는 점과 작품 배경인 천안 하염리에 1901년 사금광(砂金鑛)이 처음 발견되어 1906년쯤에는 크게 번창하였다는 유년시절의 회고를 통해 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신개지』의 창작 배경인 1905~1915년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그때까지만 해도 농민들은 근대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나 근대제도, 문물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신기함이 앞설 뿐, 근대화가 야기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근대화 과정의 기로에 고스란히 노출된 천안 지역민들이 바로 『신개지』의 등장인물이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고향』에서 보

52) 채호석, 『식민지 시대 문학의 지형도』, 역락, 2010, p.54.

여준 소작쟁의니 협동이니 하는 신념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윤수에게 희준의 역할을 바란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바로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었던 1920~30년대에는 그에 걸맞은 주제의식을 다룬 『고향』을 발표할 수 있었지만, 모든 통로가 막힌 1930년대 후반에는 비록 사회적 주제의식은 희석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농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근대화의 초반 모습을 서술하는 것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적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확대해서 말하자면, 『신개지』의 윤수와 월숙은 바로 미래의 희준과 갑숙을 창조하는데 있어 과도기적 인물인 것이다.

결국 이기영은 이들을 통해 우리 근대사의 주요한 모순이 잠재된 실재태(實在態)로서의 농촌 사회에 내재한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이를 자생적으로 터득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리얼리즘이 객관적 현실의 총체성을 그리는 것이고, 현실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모순과 그것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그림으로써 리얼리즘이 완성된다 할 때, 이기영은 근대화 과정에 있는 천안이라는 공간을 ‘신개지’로 표현하여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그 시대에 가능한 나름의 리얼리즘 창작방법론을 구사한 것이다. 물론 서술상 우연성이 남발되고, 통속적 요소가 주요 서사를 구성한다는 점, 작위적인 계몽에 대한 발언 등은 한계로 남는다. 특히 이기영 본인이 진술한 바, “<신개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작가로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나간 시대로 올라가고 그나마 추상적이 될가바 두려웠다.”⁵³⁾라는 것으로 보아 창작 과정에서 현실과 회상을 착각함으로써 리얼리티가 추구하는 현실성과의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한계로 남는다.⁵⁴⁾ 하지만 한계는

53) 이기영, 『동아일보』, 1938. 1. 18.

54) 조선 총독부는 한일병합조약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자 1907년에 건립된 남

인정하되, 비판에만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창작의 통로가 막힌 시대에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 왜성대의 통감부 청사를 총독부 청사로 전용하였다가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1926년에 경복궁 흥례문 구역을 철거한 터에 신청사를 건립하였다. 그런데 이기영은 출옥한 윤수가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광화문통 네거리를 내려오자 그는 북악산 밑으로 내리지르는 찬바람을 안고 서서 추운 줄도 모르고 한동안 우두커니, 총독부 청사를 바라보았다'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1926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1905년 경부선 개통 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기영, 『新開地』, 풀빛, 1989.
 _____, 『동아일보』, 1938. 1. 18.
 _____, 『동아일보』, 1936. 2. 13.

2. 논문

- 권일경, 『이기영 장편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김경원, 「〈신개지〉의 동참 체험과 리얼리즘의 성취」, 『한국현대문학연구』, 1992.
 김도형, 「일제침략기 반민족 지배집단의 형성과 민족개량주의」, 『역사비평』, 1989
 가을.
 김익한, 「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운동과 지역 명망가」, 『한국문화』17, 1996.
 김 철,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時空)」,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
 국문학연구소, 2006.
 김한식, 「이기영 장편소설 〈新開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8집, 2003. 3.
 서은주, 「이기영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안건호, 「1920년대 전반기 朝鮮青年會聯合會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93.
 _____, 「朝鮮青年會聯合會 組織과 活動」, 『한국사연구』88, 1995. 3.
 유진오, 「문단에 대한 희망 2, 3」, 『조선일보』, 1933. 1. 3.
 윤구병, 『있음과 없음』, 보리, 2003.
 이미림, 『李箕永의 〈新開地〉 研究』,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임 화, 「방황하는 문학정신」, 임화문학예술전집편집위원회, 『문학의 논리』, 소망출판,
 2009.
 정연태, 「조선말 일제하 資産家型 地方有志의 成長 추구하고 利害關係의 中層性」, 『한
 국문화』31, 2003. 6.
 지수걸, 「한국 청년운동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18, 1995. 12.
 _____,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역사
 교육』제3·4호, 1999.
 _____, 「일제 시기 在朝鮮 일본인 사회와 조선의 ‘지방 정치」,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5.

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90, 2010. 2.

한수영, 『1920-30년대 농민문학론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7.

3. 단행본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6.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2009.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4.

이상경, 『이기영 - 시대와 문학』, 풀빛, 1994.

이성렬, 『민촌 이기영 평전』, 심지, 2006.

정호웅,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채호석, 『식민지 시대 문학의 지형도』, 역락, 2010.

천안박물관, 『민촌과 함께 근대 天安을 가다』, 2012.

D.C.Muecke, 문양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Franz K. Stanzel, 안삼환 역,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90.

Abstract

Reconsideration "Singaeji" through creative background re-evaluation.

Kim, Hyun-Ju

The "Singaeji" Taking advantage of the colonial capitalism and Yugyonjun traditional Yangban forces continue to fall in the background Cheonan early 1900s (1905-1910 years) were newly grown, and translated by it is a work that shape up the process of colonial modernization of rural society goes underway through conflict conflict between the two layers. Take over the genealogy of the novel of rural "Singaeji", as compared with the other works of Lee Ki-young, evaluation of failure that do not realize the oneness of socialist realism is the dominant. However, it's not possible to agree fully with these discussions, is that rather than the 1920's, when researchers existing presented, creative background "Singaeji" is, of 1905-1910 a year. In addition, the late 1930s when the oppression became violently militarism of Japan is enhanced, (in 1938), and in terms of the work that has been announced at this time, we have to consider the age situation. Creative background " Singaeji " will be deployed along with the railway opening work early to evidence that 1905-1910 years, it can be found in that time the Gyeongbu-line was opened in Cheonan of 1905. Even in conjunction with gold mining, you can find the basis thereof, but a thriving time is around 1906 Cheonan region gold (gold dust 礦). In this way, the era atmosphere of the time, that is, if you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 in the early 1900, a person positive or delineate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f the real problems of work when you correct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itself to shape mosquito is impossible. Alone 3.1 before exercise, Korean society,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is a transition period before the anti-Japanese national 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is firmly established yet. Therefore,

considering the presentation time of the work, it is intended intended writer through the work should be re-recognized something, it is believed that at this time, appropriate evaluation of "Singaeji" and will be made.

Key Word : Lee Gi-young, Singaeji, Modern, Colony, Capitalism, Technique experiment, Gold mine, Colonial period, The Opening of Railroad, People of local importance

김현주

소속 : 공주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주소 : (330-9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랜드마크타워 801호

전화번호 : 010-5413-9168

전자우편 : mook413@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